

여수시,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도시 조성' 박차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전용 배출함 부착 용 스티커'와 '수거전용 톤백매대' 사진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여수시가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페트병(생수·음료병)을 분리 배출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생수 및 음료 등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은 제거한 뒤 압착, 부피를 줄여 별도의 수

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같은 투명한 용기라도 일회용 컵이나 과일용 담았던 트레이, 계란판, 도시락 김 용기 등과는 분리해야 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의무관리대상 1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색깔 있는 용기와 투명용기 분리...라벨 떼고 부피 줄여서 압착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 정착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의무화했으며, 올해 12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47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추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수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자동 캔페트 수거기 19대와 단독주택 거점수거지역에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1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말부터 관내 공동주택단지

에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10만장과 원할한 투명페트병 배출을 위한 부착용 스티커 800장과 수거전용 톤백매대 180매를 배부하는 등 제도 정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 홈페이지·SNS·전광판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 여부 및 분리배출 실태 점검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가방, 옷 등으로 재활용되는 값비싼 원료이며,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할 경우 온실가스(CO2) 48만 톤 감축과 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시 "지방정부-북평화·공동번영 함께 나아가자" 공동입장문

순천시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포럼)은 22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그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쳐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년이 지난 지금 가슴을 뛰게 했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기대와 실망이 반복했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평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으려는 북측의 노력에 변함없는 기대감을 표하며,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정상이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 북측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지 않았다. 포럼은 지방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남·북 동포들이 가진 것을 모두 합한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 지방정부가 저마다의 특색을 발휘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또 힘을 합치면 더 큰 규모의 협력사업도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럼에 속해 있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한반도 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민족 간 보건으로 협력을 비롯해 탄소배출권 강화 등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산림분야 협력, 식량 자급권을 위한 농수축산 분야 협력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자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으로 남북의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항구적 남북평화를 위한 마중물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부스 운영

외국인 주민 인권·노무·법률 지원...오는 12월까지 실시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2021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이주노동자) 인권·노무·법률상담 및 지원'을 3~12월 실시한다.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는 2012년 4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 한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국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고, 언어·교육·문화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직장과 사회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2021년 전라남도 외국인 지원사업을 신청해 전남 동부권 9개 권역(울진, 초남, 순천, 광양·덕례, 여수·여천, 보성·별교, 진월·망덕, 구례, 고흥·녹동) 대상 이동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인권·노무·법률상담 전문가 및 통역 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상담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당 지역별로 사전에 2~3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양현성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차별피해와 불편사항을 마음속 불만으로 안고 살면서 복잡한 법률절차와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지낸 이주민들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해결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친화가 이뤄질길 기대한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능력과 안정적 처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국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도시 간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국제화 및 방문·거주 외국인 관련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햇차 라이브커머스로 '완판 행진'

이틀간 5천2백만 원 판매... 차 농가 함박웃음

녹차수도 보성군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행사에서 기획 상품 등이 완판되며 5천2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보성군은 2022년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이버 라이브쇼핑 등을 활용해 보성 햇차와 차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라이브커머스는 대만다원 제2다원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 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의 대표 농가가 직접 참여해 차의 효능, 차를 맛있게 즐기는 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새벽에 탄 찾있으로 차 명인이 직접 차를 만들어보는 제다시연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아 이틀간 4,670명이 방문했다. 보성군은 다음달 22일(토)에도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자체 플랫폼인 보성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 보성녹차와 지역 농·특산물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 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 "코로나19로 지역 농가들이 농산물 판로가 막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자체 최초로 만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 라이브커머스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15:00~17:00)에 농가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판매하며 구매는 일요일 저녁까지 가능하다. 보성=김택순기자

고흥군,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세정운영·세외수입 분야에서 높은 점수 획득

고흥군은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정발전과 세수 확충을 위해 실시한 2021년도('20년실적) 지방세정 평가결과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상 사업비 7500만원과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지방세정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3개 분야 등 32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특히 세정운영분야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이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